

국어학도로서의 반세기:

언어학과의 통섭*

이 상 역**

왜 국어학?

왜 하필 국어학을 전공으로 택했는가 하는 물음을 가끔 들으며 지내왔다. 내 성장 배경은 한국학에 관심을 가질 만한 요소들이 많았다.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았던 한옥이 지금 ‘남산골 한옥마을 이승업가’로 보존되어 있는 문화재급 한옥¹⁾이었다. 따라서 그 서울 양반집 생활 풍습 속에서 보고 듣고 자라온 모든 체험이 무의식 중에 그대로 내 속에 녹아 들어 있었던 것이다. 사랑 골방 뒤 굴처럼 생긴 뒷벽을 통과하며 집 한 바퀴를 돌면 집밖을 나가지 않아도 꽤 길고 흥미로운 놀이터가 생겼고, 어린 눈에도 그 고색창연한 색벽돌 벽과 정교한 월문이 뭔가 신기하게 느껴졌었다. 이 월문은 요즘 궁중에 남아 있는 것보다도 잘 만들어진 것이었다.

육이오 날 아침 아버님 직장에서 비상을 알리는 전화가 오던 순간이 이 울타리를 처음 벗어나는 계기였다. 7세 때 바다로 피난선을 타고 가 통영

* 통합은 이질적 요소의 단순한 물리적 합침이고(예: 연합군), 융합은 화학적 합침이며(예: 핵융합), 통섭은 생물학적 합침으로 새 주체가 탄생함이 마치 유전자가 섞인 자손이 태어남과 흡사하다고 한다. 조선일보: 최재천의 자연과 문화 38 참조.

**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1) ‘남산골 한옥마을 이승업가’에 대한 소개는 이상역(1998)에 잘 정리되어 있다. 이 책을 쓰면서 한옥에 대한 탐구 취미를 많이 배양하였고 자연히 소개 강연도 꽤 하게 되었다.

(현 충무)과 부산에서 1년반 살았던 경험은, 아마도 지금까지 65년 생애 중 12년간을 해외에서 살게 만든 동기를 형성했을 것이다. 이 피난기간을 빼고는 즉 청계천 변의 삼각동 한옥 집에서 초중고 교육을 받으며 대학 초년 20세까지 지낸 기억이 여전히 생생하다.

바로 길 하나 건너 윗대 분들이 다니셨던 청계국민학교(원래는 수하동 소학교)를 다녔고 서울 수복 후 4학년 때부터 공부를 잘한 덕에 반장을 맡게 되었는데 6학년쯤 글쓰기에도 취미를 붙인 것 같다. 그 무렵은 공부에만 집중했던 시기라 졸업 때 교육감상을 받고 경기중학교를 7등으로 입학해 으쓱했다. 1학년 때 나중의 운명적 행로로 향하려고 그랬는지 신문반을 가입했다. 이후 ‘이승만’이란 어용시 작문시간에 시가 뽑혔고, 중 3 때 급기야 옛 과거시험 자리였던 창덕궁 영화당 앞에서 열린 전국 백일장에서 ‘도서실’이라고 주어진 제목에 대해 쓴 1석 시로 어느덧 문학에 기웃하기 시작한 소년이 되었다. 결국 이 일이 나중에 전공까지 하게 된 단초가 될 줄은 미처 몰랐었다.

아래에 보이는 바와 같은 소년시에 대한 평은 “비유가 형이상학적 경지에까지 이르러 책이나 도서실이 안 보인다”는 요지였다. 그래도 독서에 취미가 있다는 분위기는 잘 나타냈던 듯하여 과연 내가 15세 때 이런 시를 썼었나 싶다. 내가 살던 광고 옆 삼각동²⁾에서 장교까지 내려 오면 통나무를 치싸놓고 파는 야적장들이 있었는데, 백일장 아침에 종로 3가로 가는 길 옆에서 맡은 통나무의 필드 냄새가 시가 되어 버린 것이다. 앞으로 주로 어학 얘기만 나올 이 글에, 문학교들쪽의 읽을거리를 위해 여기 인용해 둔다.

무수한
갈피마다
풍기는
생생한 통나무 내음.

2) 2009년 말 현장에 나가보니 이 일대가 상전벽해로 바뀌어 삼각동의 아래쪽 삼각 부분이 “한빛미디어파크”로 변해 있었다. 이승녕 선생님 수업시간에 나오던 서울 지명 ‘보습꽃이’가 바로 이 삼각 부분(= 보습 + 꽃)을 지칭하던 지명이었고, 실제 우리 친척 중에 ‘보습꽃이택’으로 불리던 집안이 있었다.

나는 푸근히
 마셔 버리고 푸다.
 아니
 가슴 속에 소릇이 피는 들꽃으로나,
 가슴 속에 뭉게지는 뭉뚱으로
 하고 푸다.

눈을 따라
 주줄이
 일었다 슬어지는
 이슬의 알 알.
 나는 알뜰이 주워모아
 마음 속에 뚜렷한
 또 하나의 눈알을
 이루려나.

가을이 저물 녘에
 나는 푸썩 사이로 나부끼는
 커단 당굴잎을 하나 주워서
 맥맥이 흐르는
 깊은 뜻을
 캐려 애쓴다.³⁾

이렇게 시인연(然)하다가 고교입시가 다가 왔는데 세 자리 석차까지 내려가 어찌면 떨어질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이 생겨 벼락공부 끝에 의외의 21등으로 진학하였다. 너무 안도를 하면서 고교로 가자, 또 안 해본 문예반을 가입해 잡지를 내 보겠다는 객기가 생겼다. 1학년 때 배운 솜씨로 3학년 때 격년호를 맡아 입시 공부는 않고, 멋있는 초고교급 잡지를 출간하였다. 이때 한국학 특집도 넣어 이기문 교수님의 ‘국어학의 전망’에 대한 글을 실었다. 그밖에도 엄선한 교수님들 글만 십편 가량 넣어 마치 고교판 ‘사상계’ 같은 잡지를 편집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아래 도면의 시 앞 머리 일부와

3) 문충 주최, 제4회 전국중고교생 한글시 백일장, 1959. 10. 9, 1석 입상, 공보처장상 이 시의 몇 줄씩은 들어 써져 있는데 이런 형식은 그 뒤 아무도 주목해 주는 사람이 없었으나, 시에 있어서 흐름의 차이에 대한 색다른 표현 방식으로 한번 시도해 볼 만하다고 여전히 생각한다.

같이 새로운 활자의 역상(逆像) 사용법도 시도하였었다. 잔뜩 이상(李箱)의 영향을 받아 내 필명⁴⁾ 그 뒤는 공자의 이름인 구(丘)를 따서 구원(丘園)을 쓰다가, 요즘은 동금(東今)이라고 하려 하고 있다. 이 필명을 만든 까닭은 ‘동서고금’을 줄인 것으로서 본인이 추구해 온 인생의 범위가 바로 “동(→)금”이기 때문이다.

거리의 神秘와 憂愁 [마을안 이야기, 두째]

李 相 億

또 感堵安 의때 릴빠해말 고라‘秘神’ [여기서 읽기 시작해서 s자처럼 진행]
 ‘憂愁’라고 말해 둘 때의 隱密한 즐거움과 스며오기 始作하는 기쁨.
 .終至初自 은먹러글 ,른투서 한 는되下拂 에字活 P9 ,소로비 ,서래이

I.

諸神이 退却한 이 거리로 나는 角笛 하나만을 쫓고 나아간다. 黃昏에 비낀 古風한 列柱의 거리를 돌고 마침내 돌아, 色音도 狼藉한 破片, 破片和 차마 향그러운 砲煙의, 그 莊嚴한 廣場 어구에 이르르면,

나는 빼에로의 입같은 웃음을 웃으며 華奢했던 饗宴의 날을 反芻한다. 현대 난 暫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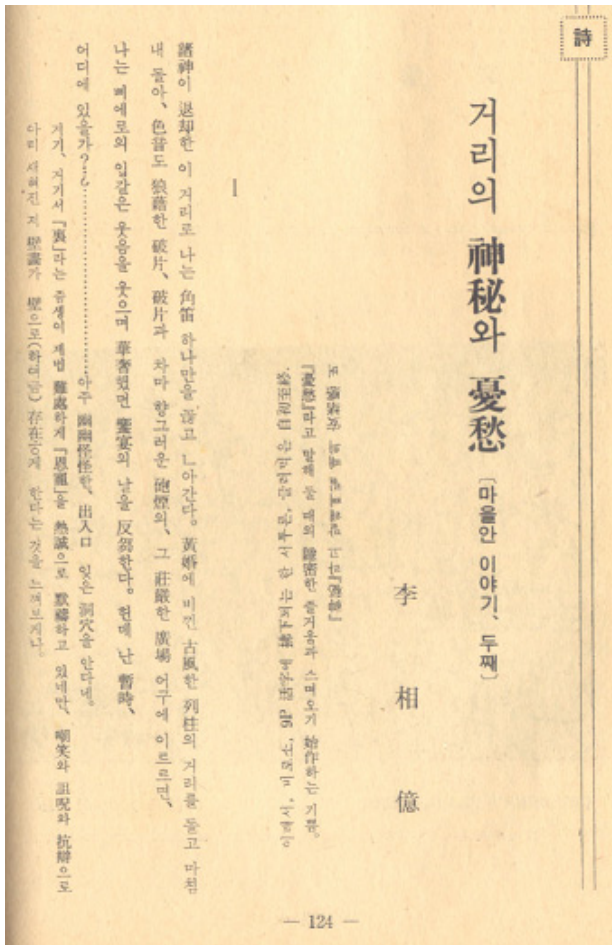
어디에 있을까??.....아주 幽幽怪怪한,
 出入口 잇은 洞穴을 안다네.

거기, 거기서 ‘裏’라는 증생이 제법 難處하게 ‘恩寵’을 熱誠으로 默禱하고 있네 만,

嘲笑와 詛呪와 抗辯으로 아리 새혀진 저 壁畫가 壁으로(하여금) 存在하게 한다는 것을 느껴 보게나. [후략](www.sangoak.com의 ‘문집원고’에 전문 수록)

S자 모양으로 활자를 배열하되 역상까지 활용한 이런 작업은 활판 인쇄에서만 가능한 것이어서, 컴퓨터 조판이 판친 뒤에는 역시 본 일이 없다. 시 내용에 김광균의 이미지즘의 영향도 받은 점이 있고, 하여튼 왜 이런 글을 썼었는지 지금은 잘 설명할 수 없는 환상이 그 무렵에 머리 속을 들락

4) 그 뒤는 공자의 이름인 구(丘)를 따서 구원(丘園)을 쓰다가, 요즘은 동금(東今)이라고 하려 하고 있다. 이 필명을 만든 까닭은 ‘동서고금’을 줄인 것으로서 본인이 추구해 온 인생의 범위가 바로 “동(→)금”이기 때문이다.



거렸던 것 같다. 홍이섭, 황수영, 이기문, 이능우, 김동욱, 이두현, 장사운 교수 등 열 분의 글을 받아 잡지를 일반인용 수준으로 잘 내기는 했지만, 애초의 의대 희망은 접고 취미대로 국문과로 오는 길에 불가피하게 들어서고 있었다.

지금 와서 과거를 돌아보니 이 때 오히려 잘 했다는 생각도 든다. 어설 폰 애타심에서 품게 된 슈바이처의 꿈보다는, 문예 취미와 한국학에 대한 관심을 키워 국어국문학이란 전공으로 자연스럽게 귀착한 것이다. 문학에

대한 병은 대학 1년 말에 ‘대학신문’ 신춘문예공모에서 가작을 받음으로써 끝이 났다. 65년 초 당선작은 없었지만, ‘가작’은 역으로 ‘작가’가 되지 말라는 말 같았고, 창작은 아주 잘할 자신과 소질이 없으면 손 안 대는 것이 좋겠다는 느낌이 밀려들었다.

그런데 ‘문학’은 뒤집으면 곧 ‘학문’이 되게 되어 있다. 2학년부턴 국어학을 전공하리라는 각오를 하고 이승녕, 이기문 선생님 방직이를 4학년 때까지 하였다. 최고의 선생님들 앞에 앉아 공부를 하는 것만해도 영광이었다. 교직 학점까지 따며 직장을 얻을 수 있는 길도 예비했고, 고교 때부터 선택했던 불어 선호 취향 끝에 불문과로 학사편입을 하여 외국에 대한 호기심도 채웠지만, 이 때 남의 나라 전공을 하면 국학을 하는 것보다 궁극적인 보람이 덜 하고, 또 도달하는 수준이 아무래도 영국인이 셰익스피어를 연구하는 것만큼 알려주지도 않을 것이라는 깨달음이 생겼다. 그판단은 지금도 옳다고 보며, 한국학자의 자부심이 여기서 우러난다고 본다.

다시 국어학으로 돌아와 석사 과정을 시작하면서 어학연구소 조교도 겸하게 되었다. 당시 외무부는 제3세계 중립국 학생들을 많이 초청하기 시작하려고 보니 교육기관이 마땅치 않아 서울대에도 한국어과정을 만들라고 주문하였다. 선배 교영근 선생님과 이 일을 시작하여 4년 반(1969~73년) 동안 조교로 근무하며 강사 역할도 하였다. 그 때 어학연구소에 와서 한국어를 공부한 학생들 중에는 유럽과 미국, 일본에서 한국학 강좌를 맡아 지금까지도 각국 한국학과의 원로로 활동하는 기둥들이 많이 배출 되었었다. 일본의 간노, 독일의 사세, 프랑스의 오랑주, 스웨덴의 로센 교수 등, 이미 팔목할 업적들을 남기고 은퇴한 나이에 접어든 학자들도 많다.

72년 ‘알카’라는 인도 여학생이 온 지 석달만에 내가 번역 녹음해 준 대본으로 앵무새 같이 연기를 잘해 웅변대회에 나가 대통령상을 타게 되었다. 물론 회화는 되지 않아 수상 후 기자 인터뷰를 피해 황급히 데리고 나왔었는데, 몇 달 후에는 급기야 연극까지 하겠다고 하여, 만사를 감당하던 조교인 내가 ‘춘향전’을 무대에 올리는 제작자까지 맡게 되었다. 유치진의 그 어려운 4자성어 대본을 쉽게 고쳐 쓰고, 외무부, 문교부, 문화공보부 3부처에서 보조금을 얻어낸 뒤, 마스크 홍보까지 펼쳤다. 17개국에서 온 30여 명

학생들이 석달간 연습하여 한국일보 소극장('72. 12. 11~12)과 조선포텔 볼룸('92. 12. 14)에서 공연한 연말 행사는 지금도 '단군 이래 초유의 기록'이다. 그 이듬해 연초에 KBS TV에서 녹화 방송을 전국에 했고, 한국일보의 연례 행사에서 연극 공연 특별상을 받기도 했다. 이 값진 경험으로 모든 공연물을 무대에 올리는 제작자의 입장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었다.

水災義捐金·새마을運動基金 募金을 爲한
17個 外國人의 最初의 韓國語 演劇

FOREIGNERS FROM 17 COUNTRIES PRESENT A
KOREAN PLAY FOR THE FIRST TIME IN HISTORY
TO RAISE A FUND FOR FLOOD VICTIMS.



언어학도

어학연구소 4년 반간 근무 시기에 미국 평화봉사단 영어 강사들이 옆에 있어, 영어로 입을 떼는 습기를 키우는 기회가 되었다. 주변의 영어과 교수님들이 국어학도 미국에서 언어학 공부를 하고 와야, 그 이론적 기반 위에서 더 잘할 수 있으리라고 충동을 해 주셨다. 우선 토플 600점 이상을 받고 Fulbright 장학금 시험을 보아 선발되면, 당시 유학시험을 봐야 하는 일도 건너 뛰고, 4~5년 기간의 미국 유학자금을 준비할 필요가 없어, 고생하지 않으며 학위 코스를 마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당시에도, 쫓내기 박사과정생에게 대학교에서 개론을 가르칠 강사 자리는 있었으나, 전임 자리는 없었다. 중고교에 교직을 얻어 몇 년을 보내며 학위 논문까지 쓰자면 5년 이상도 더 걸리면서, 사실 제출할 분위기가 될 지도 확실치 않았다. 이기문 선생님 등 구제도의 박사학위를 받으셔야 할 분들이 미처 받지 않으셨던 때였기 때문이다. 어차피 5년쯤은 유학 가는 것이 상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보통 국문과 학생이 꼭 갈 필요도 없고, 갈 엄두조차 안 낼 유학이라는 행로를 택하게 된 것이었다.

두어달 시험 준비 노력 끝에, 당시 보통 인문계보다 유독 50점이 높은 언어학 전공자에 대한 하한 점수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 한국학을 하던 학생이 미국의 신 학문을 배워 귀국 후 기여하겠다는 뜻이 유학생 선발 인터뷰에서 대환영을 받아, 플브라이트 주후보(principal candidate)로 뽑혔다. 어학 연구소에 한번 강연을 오셨던 일리노이대 김진우 교수님이 국어학 전공 한국학생이 유학 오기를 고대하시고 계셨던 터라 그리로 행선지를 최종 선택하면서 조교 장학금까지 받게 되었다. 부자가 된 줄로 알고 준비하는데, 주한 미 플브라이트 재단에서 돈 더 받게 된 만큼은 이중 취득(double dipping)이 안 되니 부(alternate)후보에게 내려줘야 한다고 했다. 이런 경우에 쓰는 용어들이 신기해 지금도 기억을 한다. 내 덕에 생긴 그 돈은 같이 뽑혔던 서울대 영문과 선배 교수 등 부후보들이 받아쓰게 되었다.

30세 직전 유학을 가게 되었으니 책임감도 컸고 허송세월할 시간이 없어 되도록 성심껏 공부한 결과 성적은 계속 유학 동안 A로만 잘 나와서, 특히 2년차에는 한 학과에 하나씩만 나온 University Fellowship을 받게 되어 미국무성 플브라이트 장학금은 또 굳게 되었다. 게다가 3~4년차에도 한국어에 관한 학위 논문을 쓰기 위해 한국어 책이 많은 Harvard대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생겼다. 원래 플브라이트 주후보로 입학허가가 나기도 했었던 Harvard대에서 Harvard-Yenching Fellowship을 2년간 받게 되어,⁵⁾ 결국

5) 하버드 학생이 아니면서 논문 준비를 위한 doctoral fellowship을 받은 것은 처음이 아닌가 싶다. 그 당시 한국 학생들이 이런 기회가 있는지조차 몰랐기 때문이었다. 미국 중부 일리노이대에서 동부 하버드대로 옮겨 가면서 두 지역의 영어말투부터 문화적으로 여러 차이가 있음을 체험하기 시작했고, 이후 5년간 체미하는 동

플브라이트 위원회는 첫 해의 일부만 지급하면서 박사학위 학생 하나를 즉 지원한 듯한 실적을 올린 셈이 되었다. 하여튼 이 무렵 장학금들을 연속해 받은 덕에 유학생들 가운데 돈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는 복을 누렸었던 인생의 개화기였다.

하지만 하버드대로 시간 맞춰 가기 위해 석사와 박사 과정 과목을 2년 안에 신속히 다 맞추려고, 각 학기중 과목을 하나씩 더 들었고 여름학기 동안까지도 몇 과목씩 수강하였다. 원래 유학 전 69~73년 중 첫 2년만에 국내 석사학위를 받고 그 뒤 3년간에 서울대 ‘신제 1기 박사 과정’을 수료하였다. 그러니 미국유학은 박사과정부터 시작하라는 권고를 받았지만, 당시 국내에도 언어학 혁명이 촘스키⁶⁾의 변형문법 바람이 불기는 했으나 본격적인 최신 교육을 받을 기회는 없었으므로, 유학을 석사과정 기초부터 하는 것이 단계적이라 판단했다. 73~78년 중 석사 과목과 박사 과목을 2년 안에, 언어학 박사학위 논문 준비를 다시 2년여간, 약 5년간 유학을 한 셈이다. 국내 5년간 대학원에 더해 총 ‘10년간 대학원생’ 노릇을 했던 셈이다. 이것이 나중에 정년 때 보니, 대학원생 기간은 다 빠져 근속연수가 남들보다 몇 년이나 짧게 된 원인이 되었다.

여기서 한 가지 일화를 소개하겠다. 1973년 7월 제10차 아시아학회를 파리의 소르본느대에서 개최하였다. 한국분과가 처음 독립 개최된다는 사실을 당시 Edward Wright 단장께 전하며 유럽을 정유해서 미국 유학을 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했다. 이 소식을 접한 단장 본인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같이 참여하게 되었다. 생애 첫 출국 시에 플브라이트 장학금 덕분에 여비를 털 들고 가서 최연소학자로 참여하고, 대통령 하사금⁷⁾까지 받으면서

안과 귀국 후 학회 참석차 여러 번 방미할 기회에, 노스다코타 주를 빼고는 미국 49개 주를 한 번씩은 지나는 여행을 기록하게 되었다. 미국 교민들조차 이것은 드문 일이라 했다.

- 6) 하버드 연칭 연구소는 자금이 풍부하여 내가 가있는 동안 Chomsky 교수 등이 있는 MIT에도 수강 등록(cross registration)을 해 주어서 미국에서 가장 우수한 언어학과의 강의를 들을 수 있었다.
- 7) 당시 청와대에서 북한과 접촉하는 최초의 학회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마련한 봉투에는 달러가 꽤 들어 있었고, 그 속에 개인 돈을 더 넣어도 김포 공항에서 속을

처음 북한 학자들을 만나는 계기가 되었다. 홍콩, 방콕, 카라치, 뉴리히를 거쳐 파리⁸⁾에서 학회를 하다가 런던, 브러셀, 룩셈부르크, 아이슬랜드를 거쳐 뉴욕으로 갔으니 이 때 벌써 10개국이 된 셈이다. 이 배후에는 소국의 싼 비행기를 찾아 타고 다녔던 이유도 있었다. 그 뒤 세계 방방곡곡을 현재 80여 개국째 다니게 된 방랑 행각이 이 때부터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유럽 43개국의 여행은 늑마에 독일에서 2년간 받은 Humboldt Fellowship 덕분이었다. 앞으로 100개국을 채워 보면 좋겠다는 희망은 가지고 있지만 이제 남은 나라들은 외진 후진국들이 많아 꽤 어려울 전망이다.

끝으로 미국 유학 기간 중 잊지 못할 일로, 박사 학위 논문을 쓰기 전에 연속 5일간 보는 자격시험은 아침 9시에 문제를 받아다가 그 이튿날 아침 9시까지 제출하고 새 문제를 또 받아 오는 방식이었다. 밤새 답안 논문 쓰다가 잘 새도 없어, 정말 아침 하늘이 노랗게 보여 지도록 눈에 핏발이 섰던 경험은 안쓰런 추억 거리가 되었다. 학위과정은 독자적 연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수련기간이라고 흔히 정의 하지만, 결국 무엇보다 인내심의 테스트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일생 중 맘껏 공부하며 보낸 그 시절이 근속연수에 포함되지 못 하더라도 사실은 가장 보람된 시기가 아

김사해 보지 않는다고 했다. 대통령의 명의를 인쇄 되어 있는 봉투였기 때문이었다. 대학원 졸업식 때 대통령 앞에서 석사 학위를 전체 대표로 받았던 후, 두번째 인연이었다.

- 8) “1973년 유럽에 처음 가게 되었을 때 뉴리히에 내려 옹후라우에 올랐다가 제네바에서 기차를 타고 파리 개선문 광장 밑 지하철 역으로 계속 땅밀을 통해 「입성」을 하게 되었다. 열기설기 연결된 지하도를 누비며 되도록 개선문에 가까운 출구를 찾고 있었다. 그날이 바로 7월 14일 아침, 풍파두 대통령 등이 사열하는 대행렬이 개선문을 통과하는 시각임을 알고 있었다. 초행길에 짧은 불어실력이라 안내판도 잘 안 보일 지경인 채, 개선문 로타리 밑의 원형으로 된 지하도를 두어 바퀴 돌며 아무리 갈광질광해도 어떤 출구도 눈에 띄지 않아, 한 아저씨에게 『우 에 르 시엘?』이라고 물었다. 『하늘이 어디 있느냐?』는 뜻이었다. 잠시 말끄러미 쳐다보던 이 신사가 홍소를 터뜨리며 한 방향을 가리켰다. 나오다 보니 「소르티(Sortie)」라는 출구 안내판이 비로소 눈에 띄었다. 수 없이 외웠던 sortir(나오다) 동사! 후에 이 이야기를 불문과 선배에게 하였더니 땅 속에서 하늘을 찾는 것은 「메타피직(형이상학적)」한 맛이 있어 좋다고 하였다.”[조선일보 1989. 8. 17. ‘一事一言’에 서]

니었나 회상된다.

국어학과 언어학의 만남

현대적 국어학은 서구 언어학의 방법을 그 틀로 쓰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뗄 수 없는 관계 하에 계속 영향을 받고 있다. 나의 공부도 이런 틀 속에 공시언어학과 통시언어학을 두루 국어의 연구에 적용해 거치면서 발전되어 왔다. 이론언어학은 20대에 시작하여 평생을 걸쳐 여전히 그 관심의 흐름이 이어졌지만, 응용언어학으로도 관심이 점차 확장되면서 실용적인 과제들, 특히 문제점의 계량적 접근이나 언어 교육의 개선 방안 등을 연구하였다.

60년대 이후 주로 미국 언어학을 숙지하고 온 외국어 전공 한국인 학자들도 전보다 국어연구에 더 경도되었다. 그 이유는 마침 그 무렵 이후 원어민의 직관(intuition)을 중시하는 변형생성문법이 흥미하여, 모국어의 연구 외에는 거의 직관적 확언을 하기 어렵게 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국어학도가 급조되니, 어설픈 영어학도가 귀국해 발표하는 자리에서 문자 이름(한글)을 언어 이름(한국어)으로 혼동하여 “한글로 말한다”는 식으로 표현하는 언어학 박사학위자도 생기게 되었다. 또 한국적인 것에 대한 과도한 애호 표시나 국수주의적 교육의 탓인지 “문자로서 한글이 우수하다”는 사실을 지나치게 확대하여, “(언어로서) 한국어가 우수하다”는 과장된 낭설까지 유포시키는 식자들도 많다. 본인은 국어학자지만 이런 식의 아집을 가장 경계하고 싫어한다.

국어학에서 출발하여 언어학을 공부하게 된 다행스런 처지에서, 이 두 분야들이 어설프지 않게 서로 깊이 있게 잘 만나 어울리기를 본인은 항상 기대하는 중이다. 유럽의 구조주의나 미국의 기술언어학이 국내에 크게 영향을 미치던 50~60년대에는 음운론, 형태론이 주 연구 분야였으나, 촘스키의 변형생성문법이 본격 도입된 70년대 이후 전 세계적 추세대로 통사론이 국어연구에서도 차츰 확산되었다. 그래서 유학 전 본인은 일찍이 통사론에 심취하여, 국어학 석사 논문은 “국어의 사동·피동 구문 연구”(1970)였다. 그러

나 통사론에 관한 설명은 그 가능성이 너무 많아서 그 중에서 가장 적절한 것을 선택하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이미 전통 변형생성 문법에서도 Chomsky (1957), Chomsky 표준이론(1965), Chomsky 확대표준이론(1973) 등이 진화해 왔었고, 그 이래 20세기 후반기를 풍미했던 통사이론으로 각기 다른 열가지는 쉽게 골라 볼 수 있겠다.

특히 관계문법(Relational Grammar)은 1974년 미 언어학회(LSA) 하계학고 장학금을 받아 매사추세츠 대학에서 학회 창립 50주년 기념 강좌 중 하나로 듣고서 바로 돌아와 일리노이대에 교수보다 앞서 최초로 전파한 바 있다. 그러나 각 예문의 수용가능성 여부를 놓고도 깔끔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워 *, ?, ?? 등의 기호를 쓰며 이견이 분분한 통사론보다 좀 더 확실한 말을 할 수 있는 음운론이 더 적성에 맞는 것 같았다.

이렇게 현대음운론 쪽에 점차 관심을 가지게 되어 Chomsky & Halle (1968)부터 체계화된 생성음운론(generative phonology)의 틀에 익숙해졌고, 그 뒤 Vennemann⁹⁾(1974)의 자연생성음운론(natural generative phonology), Stampe(1972)의 자연음운론(natural phonology) 등을 거쳐 체계적 공부를 하였다. 1975년 하버드대학으로 옮겨 가면서 MIT 대학에도 교차등록(cross registration)을 시켜 줘서 Kiparsky 교수의 세미나에서 70년대 후반 다양하게 발전한 복선(multi-linear)음운론의 여러 이론들을 직접 아래와 같이 실시간으로 접하게 되었다. 이것은 그 당시 내 academic advisor였던 Kuno Susumu 교수의 “음운론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말처럼 음운론 학자들이 꾸미고 있던 완전 새 틀의 요람 속을 들어가서 직접 경험하는 것이었다.

1. 자립분절음운론(Autosegmental Phonology): Goldsmith(1975)

9) Vennemann 교수는 본인이 Humboldt Fellow로 1986년 문헨대로 갈 때 host 역할을 해 주셨다. 1981년도에 제1차 SICOL에서 만났던 인연으로, 훗날 지원을 획득한 뒤 같이 음운론을 연구할 수 있는 문헨으로 가기로 선택했던 것이다. 우리 부부를 환대하여 옥토퍼페스트에서 맥주잔을 들고 그 거구로 걸상 위에서 춤추다 파손 사고를 냈던 즐거운 추억도 있다. 계속 교류를 하던 끝에 Vennemann(1988)의 서문에는 그의 이론을 한국에 소개해 준 감사까지 받게 되었다.

2. 음절음운론(Syllabic Phonology): Liberman(1975)
3. 율격음운론(Metrical Phonology): Kahn(1976)
4. 조화 과정(Harmony Process): Clements(1976)

위 이론들 중 내가 ‘자립분절음운론’이란 번역(일본 학자들이 ‘자음음운론’이라 한 것은 적절치 않음)을 하여 그 내용 소개를 한국언어학회(LSK)에서 국내 최초로 강의했고, 이에 앞서 박사논문 Middle Korean Tonology (1978)에서도 도입한 바 있다. 그리고 유학을 마치고 귀한한 뒤에도 80년대 이후 아래의 새 방법론이 여럿 나왔고 어휘음운론 등을 한국언어학회에서 강독하였다.

5. 어휘음운론(Lexical Phonology): Kiparsky(1982), Mohanan(1982)
6. 운율음운론(Prosodic Phonology): Nespor & Vogel(1982)
7. 미명시이론(Underspecification Theory): Archangeli(1984)
8. 자질 계층 이론/기하학(Feature Geometry): Sagey(1986)

1~8 이론들은 대등한 경쟁적 이론이라기보다 음운론의 하위 분야들을 각각 조명하여 그 부문에 맞는 방법론을 개발하여 소기의 성과를 얻은 경우였다. 이 무렵 새 이론들을 섭렵하는 것이 우리 음운론 학도들에게는 큰 유행이었다. 국내에서는 한국언어학회의 공식 요청에 의해 내가 조직한 음운론 연구회(Phonology-Morphology Circle of Korea)가 1983년(당시 유행이던 이원론(binairism)을 기념하여) 2월 22일부터 시동되었다. 세계 학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빈번하게 격주 모임을 시작해 새 이론들의 원고를 미리 모아 교재(Phonology and Morphology) 47권짜를 만들어 강독하며 연찬해 왔다. 후에 음운론학회로 개칭하여 현재도 가장 많은 (주로 미국) 음운론 박사학위자들이 모이고 있는 학술 집단이다.

1991년 미 언어학회 UC Santa Cruz 하계학교에서 Prince와 Smolensky의 연관주의(Connectionism)에 대한 특강을 수강했는데 이 이론이 최적성이론(Optimality Theory)으로 발전하였다. 이 이론은 동시기의 Goldsmith의 조화

음운론(Harmonic Phonology)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내가 국내에 ‘인지 음운론’(1994)이란 제목으로 처음 소개한 바 있었다.

9. 최적성이론(OT): Prince & Smolensky(1993)

이 마지막 것은 음운론에서 시작된 이론이면서도 차츰 형태론, 통사론의 문제까지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있다. 규칙의 적용여부로 언어현상의 기술을 해오던 방법을 버리고, 여러 제약의 적용 순서를 따져서 최적형을 가리는 방법은 전체 언어학에서 꽤 촉망되는 틀로 받아들여졌다. 70년대 후반 이후 복선음운론 경향의 많은 이론들이 파도처럼 계속 일어나더니, 거의 십년 이상 최적성이론이 독주하듯 풍미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론의 세부로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 보이는 번다한 추상적 형식화 양상은 이 이론도 역시 ‘이론을 위한 이론’에 빠져들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과연 언어의 본색이 이 이론의 세부 내용처럼 구성되어 있고 그렇게 규명되어야 할까 하는 반성과 회의도 드는 것이다. OT를 넘어서 계량적, 음성학적 기반 등을 이용하는 새로운 시도도 행해지기 시작하고 있어 주목된다. 현재 국어에 대해서도 이 최근 이론에 이르기까지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파도타기보다 실용적 지표를 탐색

40세 연령 제한이 다 차면서 독일 훔볼트 연구비(Humboldt Fellowship)를 받아 1년간 뮌헨대와 보쿰대에 가 있게 되었는데, 보쿰대의 Altmann (1978) 교수 등이 주도해 오고 있던 계량언어학적 방법이 Journal of Quantitative Linguistics와 그 Monograph Series로 출판되어 쌓여 있었다. 이들의 접근방법은 이론도 필요하지만 그 이론의 기반이 되어야 할 데이터의 신빙성 있는 처리를 계량적 방법으로 우선해야 한다는 태도였다. 많은 이론의 강독과 섭렵 후에도 만족스런 귀착점을 찾지 못하던 무렵 오히려 계량언어학적 방법은 항구적 가치가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직감이 왔다.

이상억(1990)의 “음변화 규칙의 기능 부담량”의 계량적 탐구는 그러한 소산물이었다.

물론 계량적 방법이라 해도 설정되는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리 나올 수도 있고 심지어 조작될 수도 있다. 그러나 언어학 이론이 대개 10년을 못 버티고 바뀌고 있는 현대에서 공연한 이론적 논의로 정력을 낭비하고 논전 과정에서 앙금만 남기는 것보다는 실질적 기여를 남기는 방안이 계량적 방법이라 본다. 2003년 그 동안 쌓인 논문들을 모아 간행한 『계량국어학연구』(서울대학교출판부)의 서문에도 썼지만 언어학의 이론이 바뀌어 가는 속도는 마치 파도가 쉽 없이 밀려오는 것과 같고, 현대 언어학자들은 그 위에서 서핑을 하는 것과 흡사한데, 잘 파도를 타다가도 언제건 지쳐 쓰러지게 마련이니, 무언가 움직이지 않는 부표 같은 것을 세워 놓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애초부터 내가 시작한 학문인 국어학과 미국에 가면서 시야가 확대된 언어학의 만남 속에서 이 부표를 찾는 작업을 추구하기로 한 것이다. 이제 뒤를 돌아보며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 애초에 통사론으로 시작했다가 음운론을 거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졌던 다른 분야들도 정리해 보려 한다.

언어학의 응용 분야

언어와 관련된 실질적인 분야를 다루는 응용언어학에는 언어 교육, 언어 관련 교재 개발, 교수법, 번역과 통역, 사전 편찬, 언어정책, 전산처리, 언어 치료 등 다양한 분야가 존재한다. 이들 분야에 크건 작건 약간의 관심과 업적을 남긴 것들을 언급해 보겠다. 언어 관련 교재 개발은 1973년 어학연구소 한자교재부터 시작하여 90년대 문화체육부의 “한국어” 교재를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불어, 독일어 등으로 편찬하였다. 응용언어학의 분야에는 우리말 어문 생활, 한글 맞춤법/정서법, 우리말의 로마자 표기, 외래어 표기, 표준어에 대한 것도 포함시킬 수 있다. 그 결과 1994 『국어표기 4법 논의』(서울대학교출판부)가 나왔고, 특히 로마자화에 대한 논문들이 많았다. 1982~1983, 1999~2000년 두 번에 걸쳐 로마자 개정 자문위

원으로 동원되었기 때문이다.

전산언어학은 언어와 컴퓨터의 긴밀한 연결로 전산음성학, 전산음운론, 전산형태론, 전산통사론 등을 연구할 뿐더러, 자연언어처리, 응용 시스템(음성처리, 음성인식과 음성합성, 화자인식, 기계번역, 정보검색 등), 코퍼스 언어학, 하이퍼텍스트, 인터넷과 월드와이드웹(WWW) 등의 구축을 한다. [참조: 본인의 www.sangoak.com도 구축] 이와 같이 공학과 융합적 연구에 의한 언어공학적 연구는 통섭의 시대에 인문학, 즉 언어학이 실제 제품 개발에도 응용될 수 있는 아주 유망한 분야다. 이미 음향학에 바탕을 둔 이공계의 연구와 결합하여 한국어가 음성 장치에 활용된 결과를 실생활에서 많이 접할 수 있다. 위의 전산언어학 테두리 속의 여러 부문들이, 인문학에 속하는 언어학이 자연과학과 협조하여 실용적 기여를 할 수 있는 가장 유망한 언어공학 분야가 될 것이다. 다행히도 자연과학 쪽의 관심을 받아 KAIST의 은종관 박사팀과 소리에 대해, 서울대 공대의 김영택 교수팀과 자연언어처리에 대해 몇 프로젝트를 같이 할 수 있었다.

코퍼스 언어학(또는 말뭉치언어학)은 넓은 의미의 전산언어학의 한 분야다. 컴퓨터로 하여금 인간의 말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이론 및 응용 연구를 하는 것이 전산언어학인데,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대규모 코퍼스의 처리와 대규모 전자 사전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분야와 통계언어학(또는 계량언어학)에 대한 관심은 2001년 『계량국어학 연구』로 묶어 집대성하고, 2001년 학술지 『계량언어학』 1호를 창간하여 2003년 2호, 2004년 3호를 박이정에서 출판하였다. 그 무렵 서울대에서 집담회를 매달 열어 고려대, 연세대 등의 교수들과도 발표를 돌아가며 하였다.

이밖에 담화분석, 사전학(사전편찬학) 등의 분야가 있어, 1995년 문화체육부 지원으로 『외국인을 위한 기초 한국어 사전(*Korean-English/English-Korean: Basic Korean Dictionary*)』(한림출판사)을 출간하였다. 위에서 전통적으로 국어학에도 적용해 온 언어정책에 관한 분야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향후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할 여러 응용언어학적 과제가 많이 있다. 특히 코퍼스 또는 말뭉치의 조성이 여러 기관에서 경쟁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소산물로 여러 종류의 사전들이 편찬 되고, 그 통계에 의한 계량적 연구가 수행

되고 있다. 본인의 많은 계량적 연구도 이러한 바탕에서 진행되었다.

어휘 부분보다 문법 부분을 파고드는 촘스키 이후 언어학에서는 ‘이론을 위한 이론’의 경향이 꽤 흥미하는데, 80~90년대 이후 코퍼스 자료에 기반한 어휘 연구 등은 부족했던 반쪽을 채우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통사이론 중심의 생성문법이 1970년대 이후 어휘부(lexicon)에 주목하면서, 일부 언어학자들에게 어휘론의 연구가 더욱 발전되었다. 최근 국어연구에서는 어휘의미론 분야와 연관한 연구들이 가장 활발하다. 20세기 후반기 Chomsky 류의 형식주의문법이 어휘론을 경시했던 경향이 있어 반작용으로 21세기에는 어휘부(lexicon)의 연구가 각광을 받을 전망이다.

인지언어학자들은 언어현상을 분석하기 위하여 심리학, 인류학과 같은 관련 분야의 견해를 수용할 뿐 아니라, 인간의 일상적 경험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인지모형, 영상도식, 방사상 모형, 인지구조의 실질적 지식의 명시를 강조함으로써 인지언어학은 인지과학 가운데서도 매우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 하기에 이르렀다. 서울대에 인지과학협동과정이 생기면서 본인도 평소 이 분야에 대해 접했던 정보도 정리할 겸 겸임교수로 가담하였다. 2005년 본인이 주최한 “국제한국언어학회(ICKL, International Circle of Korean Linguistics) 창립 30주년 기념논문집: 촘스키의 최소주의 이론 및 최적성이론의 한국어에의 적용”(박이정) 속의 색채어에 대한 연구는 그러한 경향을 반영한 것이다.

언어의학이라 할 수 있으며 앞서 말한 언어공학 분야처럼 실제로 인문학이 인간복지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응용분야가 있다. 국어에 대해서도 일부분이나마 연구가 시작되어 성과를 거두고 있고 앞으로 많은 인재를 필요로 하는 분야다. 본인은 어음청각검사연구-산업자원부 프로젝트를 언어의학 측과 했었고, 또 한국 언어청각임상학회의 개최를 도왔고, 서울대 공대 자연언어처리 연구실의 언어공학 프로젝트를 참여했었다. 모두 외국에서 연구해 놓은 내용들이 국어의 경우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기에, 반드시 국어학 측의 기여가 있어야 완결될 수 있다는 특수 상황에 놓여 있었다.

언어계통론 및 문자론의 분야

한국어의 기원에 대해서도 규명의 계기를 찾으려 노력해 왔다. 알타이어족의 일원이라 알려진 한국어에 대해 비교언어학적 입증이 충분히 되지 못해 회의적 반응을 국제 학계에서 받고 있으므로 최근의 언어의학 중 유전공학적 비교 연구로도 규명을 시도해 보았다. 의대 이정빈, 자연대 천종식 교수와 공동으로 “비교언어학 및 유전학적 방법에 의한 한국어 기원의 탐구”를 『인문논총』 48호(2003)에 연구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그런데 일찍이 하버드대 시절 Cleaves 교수 밑에서 고전 몽골어를 배웠었지만, 무조건 알타이학설을 믿기는 어렵다. 알타이학설에 회의적인 유럽학자들의 입장처럼 알타이어족설의 계통적 입증보다는, 대조언어학 및 개별언어연구에 국한 되는 연구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세계 문자 발달사상 가장 우수한 자질체계(featural system)에 도달해 있는 한글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국어학계에서 대외적으로도 더 활발히 문자학 연구를 주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 ICKL 학회 후에 낸 1997년 논문집 *The Korean Alphabet*(하와이대 출판부),¹⁰⁾ 2008년 국립국어원 편 『훈민정음』(생각의 나무) 및 *You can learn the Korean Alphabet in one morning* (소통)에는 그런 의도를 담은 본인의 글들이 실려 있다. 또 2009년 유럽에서 나오는 정기간행물 *Written Language and Literacy* 12.2의 guest editor

10) Sang-Oak Lee(1997)와 이 글의 번역인(2002) 참조. 이 논문들이 중요한 이유는 2008년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훈민정음과 파스파문자 국제학술워크숍”을 대대적으로 하면서, 수많은 학자들이 이미 본인의 논문 앞머리에 워크숍의 결론이 간결히 제시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었기 때문이다. 훈민정음이 다른 문자를 모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알파벳이 수직, 수평, 사선 및 원 모양 획들의 조합일 수밖에 없는 까닭에 이로써 ‘정초의 기일성문도’를 본떴다는 설도 무의미한 주장이 됨 얼핏 비슷해 보일 수 있으나 우연한 일치일 뿐이고, 특히 파스파문자와 대응된다는 적은 부분들이 전혀 체계적 대응도 안 보인다는 점을 본인은 일찍이 지적하였다. 12년이 지난 정광(2009)에까지도 외국인들의 파스파 문자 모방설을 ‘처음’ 반론한다고 했으나 전혀 착오로서, 나의 앞선 논문들을 다 보지 못하고 잘못 주장한 것이다.

로 한글을 포함한 문자 일반에 대한 학술논문들을 Benjamins 출판사에서 출판하였다.

국어학과 언어학의 상승 작용

20세기 이래 서양의 일반언어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연구되어 온 “개별언어학으로서의 국어학”에 대해 총체적으로 언급해 보겠다. 현재 여러 하위 분야까지 국어연구자들이 조금씩 분포되어 총합적으로 언어학 전 분야를 고루 담당하고 있다. 혹자는 이런 양상이 외국이론을 보세가공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폄하하면서 자생적 독자적 이론이 나와야 할 시기라고 강변했으나, 현대언어학의 신이론이 나오는 치열한 논의 과정을 제대로 섬세히 살펴 보지 못한 우물 안에서의 무지한 고함인 경우가 아닌가 한다. 아직은 우리가 공력을 쌓아 그 기반이 서양 언어학의 바탕과 대등할 정도로 되고, 또 연구자도 더 확충되어 온축이 쌓이고야 ‘한글’을 쓰는 민족의 저력에 의해 큰소리를 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언어학 연구에 기여할 만한 “개별언어학으로서의 국어학”에서 발견된 제 현상과 이론의 건실한 축적이 필수전제다.

요즘 언어학 관계 정기학술지는 10년만 지나면 휴지가 된다는 말이 있다. 물론 서양언어학이 지나친 추상화 혐의가 있고 변화 속도가 너무 빨라 불안정하므로 과연 언어의 본질을 제대로 밝히고 있는 것인가는 반성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경향을 대응할 기반 지식의 연찬도 없이 흔히 국수주의적 태도로 무조건 비판하는 자세는 더 나은 것이 아니며, 오히려 과학적 엄밀성의 전통이 지켜지고 있는 서양 학문의 관점에서는 이성적 연구자의 자질이 없는 바나 다름없다. 개별언어 자료가 일반이론 형성에 기여하도록 국제적 수준을 성취하는 일이 언어학계나 국어학계의 장래 과제다. 언어학과 그 영향하의 국어학 연구 성과를 평가하고 문제점 극복 방안들을 생각해서 상승 작용을 추구해 보는 일은 앞으로 전개될 연구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이다.

끝으로 본인의 고향 서울지역어에 대한 관심은 2000년에 학술지 『서울말 연구』 1호를 창간하게 하였고, 2002년에 2호를, 2006년에는 『서울말 진경

구어(眞景 口語) 연구』를 박이정에서 출판하였다. 그리고 벽두에 말한 바 있듯이, 『서울의 한옥』을 1998년에 한림출판사에서 상재하였다. 이 책은 ‘외도’라기보다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문화도 가르쳐야 했던 본인의 오랜 교육 경력에서 필요하기도 하여 계획한 책이었는데, 보통 건축서들이 건축에 관한 하드웨어만 기술하고 끝내는데 반해 그 속에서 살던 사람들의 의식주 생활상까지 포함시킨 거의 유일한 책이 되었다. 특히 집안 모든 구성원들의 계층적 차이를 음운론에서 쓰는 변별자질의 조사방식처럼 했기에 가장 효과적으로 밝힐 수 있었다. 이 서울말과 한옥에 대한 연구들로 서울시 문화상을 받게 되었는데 상복이 없는 본인에게 가장 적절하고 필요한 유일한 상이 되었다.

이 땅 최초의 일들

대학 1학년 때부터 총애를 해 주시던 백사 전광용 선생님이 애용하시던 “이 땅 최초의”라는 수식어가 있다. 여기 정말 “이 땅 최초의” 일들을 열거해 보겠다. 우선 한국전쟁으로 부산까지 피난을 갔었던 경험이 암암리에 해외로까지 지향하려는 본인의 기질을 싹 틔웠을 것이라고 이미 말했다. 이것이 국어학을 전공하면서 외국의 주요 연구기금(Fellowship) 3가지들을 다 받는 남다른 (아마 최초의) 기록을 세우게 된 결과를 낳았다.

1973~78 Fulbright Scholarship으로 미국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

대학원 언어학 석사, 박사 취득

1975~77 미국 Harvard-Yenching Institute, Doctoral Research Fellowship

(객원연구원, 2년간 박사논문 준비)

1985~86 독일 Humboldt Fellowship 초청, München 및 Bochum 대학

연구교수(1년간) 및 2003 Technical Univ. at Berlin 대학 연구

교수(3~8월) 재초청, 향후 잔여 기간 6개월을 또 초청 받을 예

정이다. 또 1990 Volkswagen 재단 연구비로 독일 Konstanz 대

학 연구교수(1~2월)도 역임하였다.

단기간이었지만 2004년 여름 핀란드 정부 해외 학자 초청(MOSS) 계획으로 헬싱키대학에서 알타이어학 연구도 하였다.

또 한국학 해외 보급 역사상 남반구에 최초로 한국어 과정을 호주국립대(세계 대학 중 38위)에 개설하여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 말하자면 DOWN UNDER 한국학의 시조인 셈이며, 1988년 이후 호주에 한국어 과정이 8개 대학으로 확산되는 기폭제가 되었다. 이같이 1980~81년 호주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에 산학재단 파견교수(1년간)로 강의를 한 뒤, 확산되던 한국학의 중심이 되어 1994~97년 호주 University of Sydney 한국학 담당 초빙교수(3년간) 재직 중, 역시 남반구 최초로 1996년 제3차 환태평양 아시아 한국학 대회(PACKS)를 호주 시드니대에서 개최할 때 조직위원장으로 진력하였다. 그 후 2006 제8차 PACKS 대회(인도 네루대)의 실질적 조직에도 진력하였다.¹¹⁾ 이렇게 두 대회의 조직을 맡아 본 일도 드문 기록이다.

1971년 서울대 ‘신제 1기 박사 과정’의 제1번 학생으로 선발되었다. 국어 국문학과는 전교 과 순위에서 항상 제1위에 있어 왔다. 그러나 이 땅 최초의 이 기록은 3년 후에 미 국무성 장학생으로 ‘저 땅’에 유학을 가게 되어 과정 수료로만 끝나고 말았다.

1972년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조교로 ‘춘향전’을 시내 무대에 올리는 작업을 맡게 되었다. 정부 3부처의 지원으로 17개국에서 온 30여 명 학생들이 당시 장안에서 최고 무대인 조선호텔 볼룸을 협찬 받아 공연한 행사는 단군 이래 초유의 기록이다.

1983년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에 말레이시아의 동방정책으로 온 장학생반을 교육하는 과정을 이 땅 최초로 개설하여,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

1987~89년 “서울대학교-UCLA 한국어문화교육 한국내 과정” 책임자로 서

11) PACKS 회의는 2년마다 환태평양 지역의 한국학 거점 대학에서 개최해 왔는데 2004 제7차 대회는 대만 문화대에서 임명덕 교수(‘춘향전’ 때 참여학생)가 주관하여 차기 개최지를 인도 네루대로 지명하게 되면서, 본인의 후기 제자인 Ravikesh 교수가 바톤을 받았다. 그러나 인도는 한국학 교수가 각 분야마다 분포해 있지도 못해 논문 선발부터 예산편성까지 실무에 전에 조직 경험이 있는 본인이 해 줄 수밖에 없었다.

울대의 한국문화 관계 교수님들을 총동원하여, 매년 20명의 UCLA 학생을 서울대 캠퍼스에서 3~6월 매일 지도하였다.¹²⁾ 1990~94년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방법을 사용해 서울대학교에서 UCLA 및 호주 Griffith대와 Telelink 화상 교육을 실시했는데 과정 책임자로 태평양을 동서와 남북 양방향으로 건너, ('이 땅' 정도가 아니라) '지구상의' 원격교육 역사상 최초로 장거리 화상강의를 실시하였다.¹³⁾

1999년 서울말 연구회 대표로 서울 방언 연구학술지를 최초로 발간하였다. 이 일에 대하여 2006년 55회 서울시문화상 인문과학부분을 수상하게 되었다.

1987~9년간 서울대학교 본부 교무부처장(2년간)을 맡다가 호주에 한국학 교수로 갔다. 2001~3년간 서울대학교 연합전공 한국학 전공주임(2년간)을 맡다가 다시 독일에 연구교수로 갔다. 2006년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한

12) SNU-UCLA Language Conservation Project in Korea(1987~9)은 UCLA Language Resource Program을 맡은 응용언어학과장 Russell Campbell 교수가 본인에게 제안해 와서 교과과정, 교수진, 과외 활동 및 수학여행 등 모든 일을 조직하게 되었다. 교민이 가장 많은 LA의 주립대학으로서는 1986년부터 뒤늦게 한국어과목을 도입한 UCLA는 spring quarter(3월 말~6월 초 10주간)에 약 20명의 학생을 파견해 집단적 한국어 in-country training을 시행하였다. 아마 이 정도 규모의 지속적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은 사상 처음이었을 것이다.

13) 1987~89년 "한국내 과정"에 매년 20명의 UCLA 학생들이 서울에서 3개월쯤 생활하다 보니 교통사고나 질병도 날 수 있었으나 보험도 안 들어 있던 상태라 그대로 지도하기는 어려운 면이 부각되었다. 그래서 학생들을 LA에 그냥 두고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Campbell 교수가 미국 회사의 본-지사 간에서 막 초기적 사용이 시도되었던 위성통신방식(Tele-link Program)의 원격화상강의를 도입하기로 했다. OPTEL사가 개발한 원시적 인터넷 시스템이라 할 만한 이 방법은 음성과 화면 전송에 각각 상업용 전화선을 하나씩 써야 했으므로 운영비가 꽤 들었으나 워낙 초유의 일이었기에 한국통신이 연구비를 지급하였다. 사진 한 화면을 주사하는 데 천연색은 1분이나 걸렸고 흑백은 10초가 걸리던 때였다. Campbell 교수가 애초에 이 방식은 중국 칭화대와 시도해 보려했으나 1989년 당시 열악했던 중국의 통신 사정으로, 1990년 4월 26일(LA는 25일) 서울대가 세계 최초로 태평양 건너 화상강의 상대가 되는 기록을 세우게 된 것이다. 본인은 이 프로젝트에 온 정성을 쏟아 4년간 언어학뿐 아니라 정치·역사·미술 등 많은 분야의 강의를 교환하도록 기획 실행하였다. 이상익(1987) 참조.

국어연구소¹⁴⁾를 개설하여 소장직을 맡다가, 2008년 미국에 서울대 분교를 개설하는 일로 갔다. 연합전공과 한국어연구소 그리고 서울대학교 미주센터 개설 세 가지 모두는 최초로 창설한 초대 보직이었다.

2007년 서울대학교 해외 분교 설립 계획 연구책임자로 동남아와 LA를 후보지로 조사한 끝에 2009년 4월 LA에 사무실을 얻어 5월 14일 미주센터를 최초로 개설하고 6~8월간 교양-건강강좌를 실시하였다. 국립대 사상 초유의 일이라 할 수 있다.

1983년 음운론연구회(The Phonology-Morphology Circle of Korea)를 창설, 현재 한국음운론학회로 개명하여 음운론 학계의 중심이 되고 있다. 초기에도 이기문 교수 등 국어학자도 반을 차지했었고, 이제는 주로 미국 음운론 박사들만 해도 약 70명이 넘고 음성학, 음운론 및 형태론 관련 학자들이 다 함께 강독과 논문 발표회를 계속해 나가고 있다. 이런 면학 분위기를, 나중에 들어온 후배들은 내력을 잘 몰라도, 애초의 산파로서 학회가 발전하는 과정을 계속 관여하며 조성하는 본인으로서는 대견하기 그지없다.

2002년 국제한국언어학회(ICKL) 부회장 때 오슬로 대학 티호노프 교수, 2003년 이후 회장으로 베를린 과기대 에르드만 및 조시영 교수, 2004년 터키 앙카라대 픽멘 교수,¹⁵⁾ 그 뒤도 2005년 뉴델리 네루대 자야 및 라비케쉬 교수, 2006년 멕시코 과달라하라 자치대 토레스 교수, 2007년 홍콩 성시대 완다 및 코리건 교수, 2008년 코넬대 휘트먼 및 뉴욕 빙햄턴대 조성대 교수들을 교섭하여 학회를 초청 주최하도록 했고, 여덟 번째로 2010년 몽골

14) 한국어연구소는 2006년 5월부터 창설되어 2년간의 짧은 기간에 14회의 월례 초청강연회(이기문, 강신항, 김완진, 고영근, 심재기, 김진우 교수 및 Hock, Horie, Beckwith, Takubo, Vovin 교수 등 총 22명)와 3번의 국제회의와 3종의 총서를 발간하는 활동적 전통을 국어국문학과에 남겼다. 이 업적은 이상억(2008) 말미의 회보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 뒤 2009년 한국문학연구소와 합쳐서 한국어문학연구소로 명목상 증대되었으나, 과거와 같은 활동은 현재 좀 침체 되어 있다.

15) 학회를 여러 곳에서 여러 번 주선해 보았지만, 앙카라대가 후원하여 지중해 연안에 있는 안탈라 시의 앙카라대학 휴양호텔식 회의장에서 회의를 알차게 하면서, 저녁에는 민속 춤 대학생 공연단까지 7시간 걸려 버스 한 차 가득 데려와 보여주고, 같이 손잡고 해변에서 민속 춤을 추다가 하늘 위에서 불꽃 놀이까지 티지는 환대를 받았었던 일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인문대와 진전되도록 주선하였다. 이 ICKL 학회는 1975년 한국언어학회보다 한 달 일찍 미국에서 생긴 학회이기에 역대의 많은 회장이 미국에 있어 국내 재단 및 회원 접촉 등, 총괄 운영을 한국에서 여러 차례 대신하여 왔다.

참고 도서

- 국어국문학회 엮음 (2002) 국어국문학회 50년, 태학사.
- 권재일 외 4인 (1999) 언어학과 인문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 이상억 (1970 등사본) 국어의 사동-피동 구문 연구; (1999 활판본) 집문당.
- 이상억 (1987) “서울대-UCLA 한국어-문화 연계교육 프로그램의 소개”, 이중언어 학회지 3, 109-193.
- 이상억 (1990) 현대 국어 음변화 규칙의 기능 부담량, 어학연구 26.3. 441-467.
- 이상억 (1994) 인지음운론, 장석진 편 (1994) 현대언어학 지금 어디로, 한신문화사, 503-517.
- 이상억 (1998) 서울의 한옥: 홍문сит골 이벽동대-남산골 한옥마을 도판수 이승업가, 한림출판사.
- 이상억 (2002) “훈민정음의 자소적(字素的) 독창성,” 고영근 외 ‘문법과 텍스트,’ 서울대출판부.
- 이상억 (2004) 언어와의 만남, 학연사.
- 이상억 (2008) 조선시대 한국어 용언의 음변화 연구,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한국어연구소 총서2, 박이정.
- 정광 (2009) 몽고자운연구: 훈민정음과 파스와 문자의 관계를 해명하기 위하여, 박문사.
- 한국문화연구원 편 (2002) 국어학연구 50년, 도서출판 해안.
- Altmann, G. (1978) “Towards a Theory of Language.” In G. Altmann, (ed.) *Quantitative Linguistics 1: Glottometrika 1*, Bochum: Brockmeyer, 1-12.
- Archangeli, D. (1984) *Underspecification in Yawelmani Phonology and Morphology*, Ph.D. dissertation, MIT. (1988) New York: Garland.
- Chomsky, N. (1957) *Syntactic Structures*, The Hague: Mouton.
- Chomsky, N. (1965) *Aspects of the Theory of Syntax*, Cambridge, Mass.: MIT Press.

- Chomsky, N. (1973) "Conditions on transformations." In Anderson, S. R. and P. Kiparsky (eds.) *Festschrift for Morris Halle*.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 Chomsky N. & M. Halle(1968) *The Sound Pattern of English*, New York: Harper & Row.
- Clements, G. N. (1976) Vowel harmony in non-linear generative phonology: the autosegmental theory, Ms. Harvard Univ.
- Goldsmith, John (1976) *Autosegmental Phonology*, Ph.D. dissertation, MIT; (1979) New York: Garland.
- Kahn, D. (1976) *Syllable-based Generalizations in English Phonology*, Ph.D. dissertation, MIT.
- Kiparsky, P. (1982) "From cyclic phonology to lexical phonology." In H. van der Hulst and N. Smith (eds.) *The Structure of Phonological Representations* (Part I), Dordrecht: Foris.
- Lee, Sang-Oak (1978) *Middle Korean Tonology*. Seoul: Hanshin; (2007) Seoul: Hankookmunhwasa Publishing Co.
- Lee, Sang-Oak (1997) "Graphical Ingenuity in the Korean Writing System: With New Reference to Calligraphy." In Young-Key Kim-Renaud (ed.) *The Korean Alphabet: Its History and Structure*.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107-116.
- Lee, Sang-Oak (2005) "Preferred Colors in Various Cultures based on Lexical Frequency: Comparison among Korean, English, German, French, Russian, Romanian, Chinese, Japanese, and Mongolian." In Lee, Sang Oak (ed.) *ICKL, An Anthology for the 30th Anniversary of International Circle of Korean Linguistics*. Pagijong Press. 185-210.
- Lieberman, M. (1975) *The Intonational System of English*, Ph.D. dissertation, MIT.
- Mohanan, K. P. (1982) *Lexical Phonology*. Ph.D. dissertation, MIT. (1986) New York: Garland.
- Nespor, M. and I. Vogel (1986) *Prosodic Phonology*. Dordrecht: Foris.
- Prince, A. & P. Smolensky (1993) *Optimality Theory*. Ms. Rutgers Univ.
- Sagey, E. C. (1986) *The Representation of Features and Relations in*

- Non-linear Phonology*. Ph.D. dissertation, MIT. (1990) New York: Garland.
- Stampe, D. (1972) *How I spent My Summer Vacation*. Ph.D. dissertation, Univ. of Chicago; (1979) *A dissertation on natural phonology*. New York: Garland.
- Vennemann, T. (1974) Phonological concreteness in natural generative grammar. In Shuy and Bailey (eds.), *Toward Tomorrow's Linguistics*,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 Press. 201-219.
- Vennemann, T. (1988) *Preference Laws for Syllable Structure and the Explanation of Sound Change*. Amsterdam: Mouton de Gruyter.